

**투자목적 및 전략**

- 이 투자자산탁은 모투자자산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자산탁으로 모투자자산탁(카디안 글로벌 리더스 증권모투자자산탁(주식))은 전 세계의 기업 가운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이 투자자산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의 투자는 AGF Investments 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728억 원

-모투자자산탁 772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모투자자산탁 편입비 : 100% 이하  
-모투자자산탁의 주식편입비 : 7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A : 2007년 01월 15일
- 클래스 A-E : 2016년 09월 01일
- 클래스 C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20일
- 클래스 C-F : 2017년 07월 10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06년 08월 24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10월 26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9년 07월 25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19년 04월 17일
- 클래스 C-W : 2007년 03월 1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3일
- 클래스 S-P2 : 2016년 07월 06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95% +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중 환헤지 비중** 94.6%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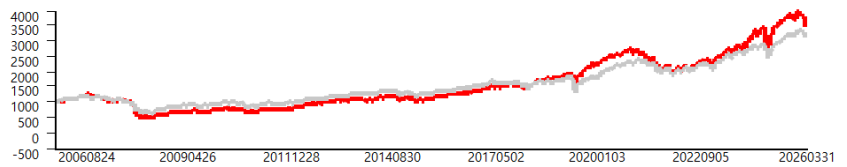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0.61%	-7.99%	-7.39%	14.77%	27.70%	61.79%	42.19%	247.63%
클래스 A	-10.77%	-8.46%	-8.33%	12.53%	22.80%	52.58%	28.75%	117.16%
클래스 A-E	-10.72%	-8.33%	-8.08%	13.13%	24.11%	55.04%	32.29%	160.83%
클래스 C	-10.80%	-8.55%	-8.52%	12.08%	21.82%	50.79%	26.23%	112.90%
클래스 C-E	-10.74%	-8.38%	-8.17%	12.91%	23.63%	54.13%	30.99%	187.49%
클래스 C-F	-10.68%	-8.21%	-7.83%	13.72%	25.40%	57.43%	35.75%	144.88%
클래스 C-P(퇴직연금)	-10.75%	-8.39%	-8.19%	12.86%	23.51%	53.92%	30.67%	85.78%
클래스 C-P(퇴직연금)E	-10.71%	-8.29%	-8.01%	13.30%	24.47%	55.72%	33.27%	119.71%
클래스 C-P2(연금저축)	-10.74%	-8.38%	-8.18%	12.89%	23.59%	54.05%	30.87%	72.05%
클래스 C-P2(연금저축)E	-10.71%	-8.29%	-8.00%	13.31%	24.50%	55.77%	33.35%	86.02%
클래스 C-W	-10.68%	-8.20%	-7.82%	13.75%	25.44%	57.53%	35.93%	34.92%
클래스 S	-10.71%	-8.28%	-7.98%	13.36%	24.60%	55.95%	33.61%	185.24%
클래스 S-P2	-10.70%	-8.26%	-7.93%	13.49%	24.89%	56.50%	34.40%	186.97%
벤치마크	-7.96%	-4.84%	-0.98%	14.48%	21.41%	48.86%	46.88%	208.98%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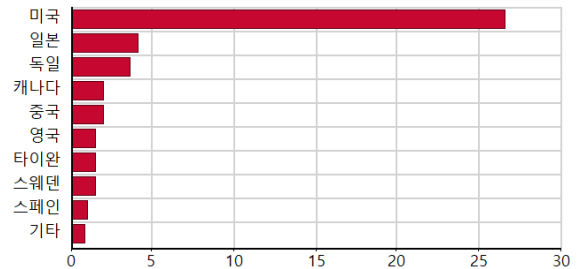


출처: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3월말, 모투자자산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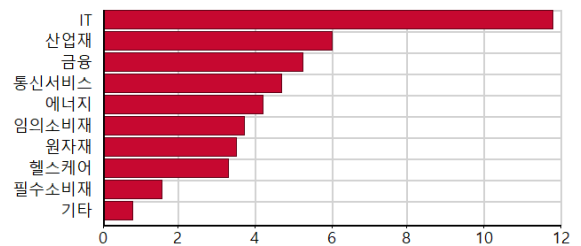
**<국가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미국	26.6
2	일본	4.2
3	독일	3.7
4	캐나다	2.0
5	중국	2.0
6	영국	1.5
7	타이완	1.5
8	스웨덴	1.5
9	스페인	1.0
10	기타	0.9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11.8
2	산업재	6.0
3	금융	5.3
4	통신서비스	4.7
5	에너지	4.2
6	임의소비재	3.7
7	원자재	3.5
8	헬스케어	3.3
9	필수소비재	1.6
10	기타	0.8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3월말 기준, 모투자자산탁 주식비중)**

종목명	국가	섹터	비중(%)
Tokyo Electron Ltd	일본	IT	2.9
NVIDIA Corp	미국	IT	2.5
Amazon.com Inc	미국	임의소비재	2.1
Tencent Holdings Ltd	중국	통신서비스	2.0
Alphabet Inc	미국	통신서비스	1.7
Siemens Energy AG	독일	산업재	1.7
Walmart Inc	미국	필수소비재	1.6
AbbVie Inc	미국	헬스케어	1.6
TechnipFMC PLC	영국	에너지	1.5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타이완	IT	1.5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2.01% (판매 1.1%)
- 클래스 A-E : 총 연 1.46% (판매 0.55%)
- 클래스 C : 총 연 2.41%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66% (판매 0.75%)
- 클래스 C-F : 총 연 0.94%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71%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31%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8% (판매 0.77%)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1.3% (판매 0.39%)
- 클래스 C-W : 총 연 0.91%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1.26%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1.14% (판매 0.23%)

(공통사항)

운용 0.84%, 신탁 0.05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2%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6% 이내
- 클래스 C, C2, C3, C4, C5, C-E, C-F, C-P, C-PE, C-P2, C-P2E, C-W, S, S-P2: 없음

**후취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란 관련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갈등이 5주차에 접어들며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었고,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부담과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유가와 기업 이익률 압박 우려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진 반면, 에너지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금리 하락과 정책 완화 기대 속에 비교적 건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아시아 증시는 글로벌 기술주 부진과 외국인 자금 유출 영향으로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캐나다 등 원자재 비중이 높은 시장은 에너지·소재 업종 강세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모펀드에서는 종목 선택 효과가 펀드 상대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자산 배분은 일부 긍정적인 기여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IT 및 에너지 업종에서의 종목 선택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재량소비재 역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필수소비재 업종에서는 종목 선택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종목 선택이 펀드 상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3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긴장 국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에너지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며 시장 변동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업종 및 스타일 간 성과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수익성 가시성이 제한된 일부 성장주에 대해서는 선별적 접근이 이어지는 반면, 실적 안정성과 가격 결정력을 보유한 기업 및 에너지·소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펀드 운용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실적 회복력과 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접근을 지속하는 한편, 고밸류 성장주 비중은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산 효과를 강화하며 중장기 투자 기회를 선별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